

이 수원, 김 희재

성균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

벌집에서 얻어지는 지용성 복합체인 propolis는 여러 가지 꽃봉우리과 수목들의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비하는 봉교(蜂膠)를 꿀벌들이 모아 벌 자신의 침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드는 수지성, 점착성, 고무상의 물질이다. 이러한 propolis는 방부, 수렴, 정균, 진경, 소염, 마취작용 등 여러 가지 약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강식품, 화장품, 치약 등에 이용되고 있다. 이러한 propolis는 산지에 따라 그 환경 및 식물분포 차이로 인해 구성성분이 다를 수 있다. 그러나 아직 한국산 propolis에 대한 구성성분, 항균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.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propolis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과 경북 예천 propolis 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.

본 연구에서는 예천과 영월산 propolis를 4가지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 결과 모두 chloroform에서 가장 높은 85.5%, 84.9%의 수율을 보였으며 ethanol, ethylacetate, buthanol 순으로 나타났다. 산지별로는 예천산이 영월산보다 다소 높은 추출율을 나타내었다. 각 용매 추출물의 미생물 생육억제 효과를 검토하였으며, 주로 Ethanol 추출물을 사용하여 *E. coli*, *Sta. aureus*, *B. subtilis*, *S. typhimurium*, *P. aeruginosa*, *C. utilis*, *Asp. nigin* 등에 대한 생육억제 및 최소저해농도(MIC)를 측정된 결과 외국산에 비해 항균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